

침례와 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이번 『친구들』 특집호를 즐겁게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호는 침례와 확인에 관한 기사들로 가득합니다.

혹시 이제 갓 침례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새로운 회원이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침례를 받은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성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확인을 받을 때 성신의 은사를 받습니다. 성신은 평생 여러분을 위로하고 인도하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침례를 받았다면, 그때 맺은 성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 중요한 단계에 대해 더 많이 배워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보살펴 주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며,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일회장단

이번 달 침례 특집호를 더 주문하려면 뒤표지를 참조하십시오.

목차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셨어요	4
조르지아의 정말 중요한 날.....	6
활동: 침례탕까지 한걸음 한걸음.....	8
활동: 제 침례식에 초대합니다!.....	9
나의 침례 성약	10
저는 이렇게 침례를 받았어요.....	12
함께 예수님을 따릅니다.....	14
나의 침례와 확인 의식.....	16

확인과 성신의 은사

특별한 선물	18
활동: 점들을 연결해요.....	20
성신의 소리를 들어요.....	21
절대 혼자가 아니야.....	22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24
활동: 굳건히 서서.....	25
활동: 경전에 색깔을 더해 보세요.....	26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28
성찬을 취해요	30
활동: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아요	31
제이든의 말씀	32
가족의 이야기를 알아보세요.....	34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처럼 성장하기.....	36

매일 예수님을 따라요

깨진 물병	38
공원에서 있었던 일.....	40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요.....	42
재미있는 활동: 숨은그림찾기.....	43
반짝이는 목걸이.....	44
성약의 길을 따라 걸어요.....	46
여러분을 위한 잡지!.....	48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방법을 보여 주시려고 지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셨고, 우리도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몸소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따르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을 느끼셨고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구주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죽은 뒤에 다시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해내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언젠가 하늘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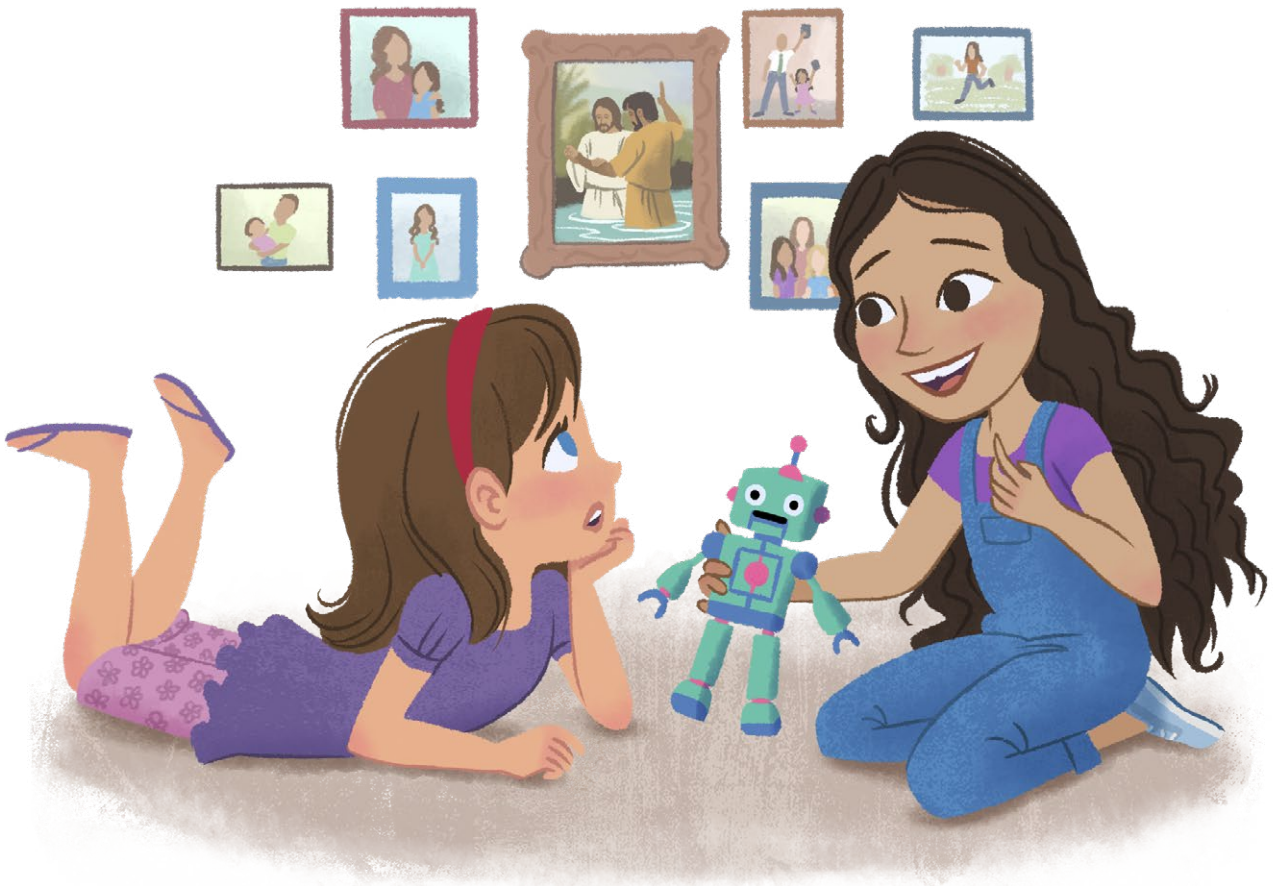


마태복음 3:13~17 및 제3니파이 27:13~16 참조.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매일 그분을 따를 수 있어요. ●

조르지아의 정말 중요한 날

“나도 이제 곧 침례를 받을 거야. 예수님처럼 말이야!” 조르지아가 말했어요.



올리비아 키터먼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조르지아는 바깥 뒤따라오는 마틸다와 함께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친구가 놀러 오는 날은 언제나 신이 났어요.

“같이 로봇 놀이 할까?” 마틸다가 물었어요.

“좋아!” 조르지아가 대답했어요. 조르지아는 로봇 놀이를 제일 좋아해요.

조르지아가 로봇을 꺼내는 동안, 마틸다는 방 안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러다 가운데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저건 무슨 그림이야?”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림이야. 그리고 나도 이제 곧 침례를 받을 거야. 예수님처럼 말이야!”



“너는 왜 침례를 받아?” 마틸다가 물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거든. 침례를 받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맺는 거야!”

그때 조르지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 침례식에
 올래?”

“엄마한테 여쭙어볼게.” 마틸다가 대답했어요.

조르지아의 침례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조르지아는
 매일 경전 이야기책을 읽고 매주 초등학교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를 마치면 예수님 그림을 올려다보았어요.
 조르지아는 침례를 받으면 어떨까 자주 상상했어요.

침례식을 한 주 앞둔 일요일에는 침례 접견이 있었어요.
 조르지아는 부모님과 함께 감독실에서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감독님은 조르지아가 침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나요?”

조르지아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네.”

감독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침례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에요. 자매님은 침례를 받고 싶으십니까?”

조르지아는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그분을 따르고 싶은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네!”

마침내 조르지아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 왔어요. 조르지아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을 보고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보았어요. 그중엔 마틸다도 있었어요!

아빠의 침례 기도를 듣는데, 마음속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해졌어요. 기도를 마친 아빠는 조르지아를 조심스럽게
 물에 잠기게 한 뒤 바로 물 밖으로 올리셨어요. 물 밖으로 나온
 조르지아는 행복했고, 깨끗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아빠는 조르지아를 꼭 안아 주셨어요. 엄마가 계단
 꼭대기에서 수건을 들고 웃는 얼굴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조르지아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참 특별한 날이었어요.
 조르지아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선택했어요. 조르지아는
 이제 매일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

침례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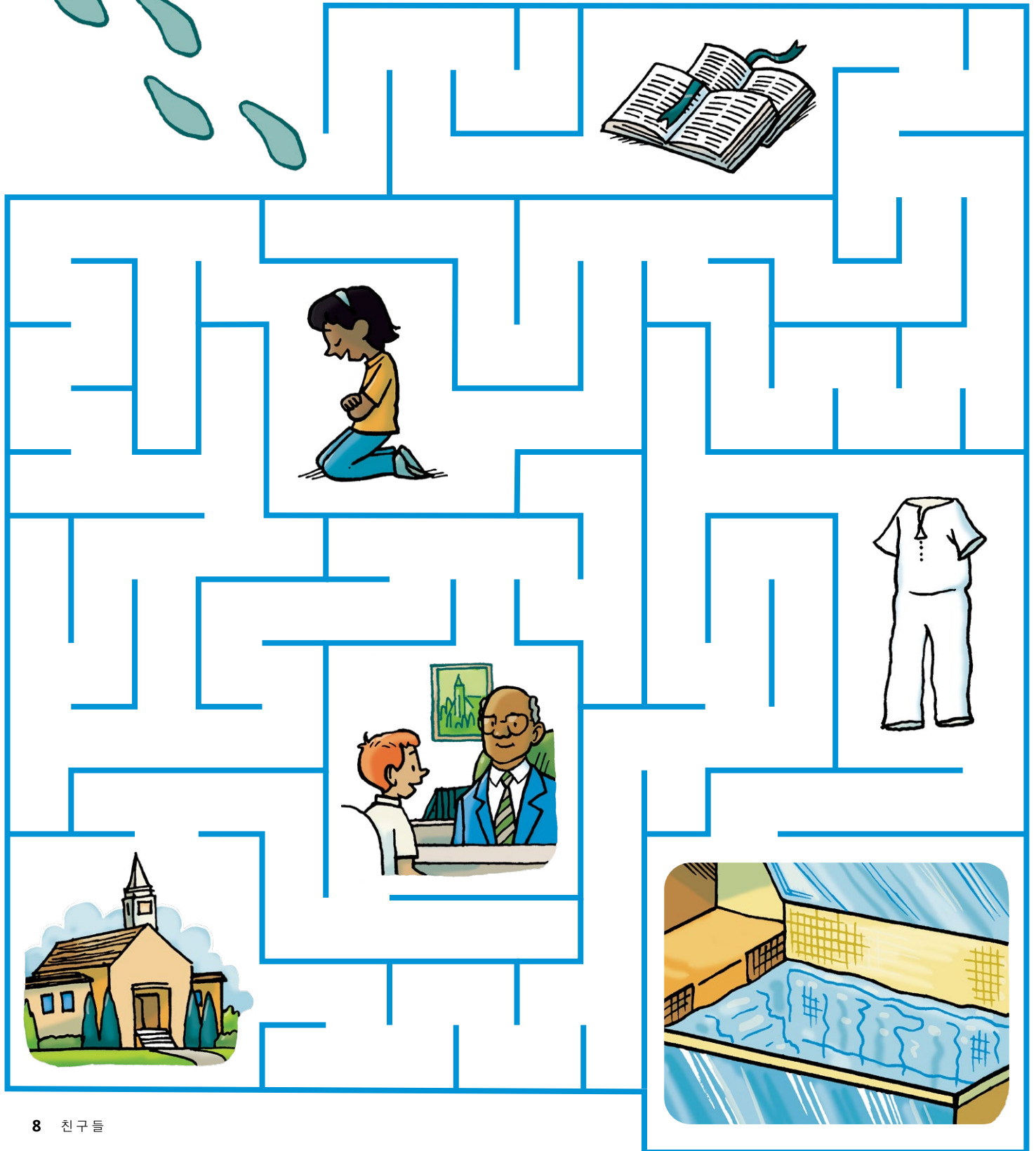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축복할 권능과 권세를 지상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 권능을 신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에게 침례를
 줄 분은 다음과 같이 특별한
 기도를 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멘.”



침례탕까지 한걸음 한걸음

미로를 통과해 침례탕으로 향하는 길을 찾아보세요! 길을 따라가며 나오는 각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이 침례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제 침례식에 초대합니다!

필요한 것:
종이, 마커, 물감

여러분의 침례식에 사람들을 초대할 알록달록한 카드를 만들어 보세요! 누구를 초대하고 싶나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성신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1. 종이를 반으로 접으세요. 카드의 앞면이나 안쪽에 사람들을 침례식에 초대하는 글귀를 적으세요.
2. 침례식 날짜와 시간, 주소도 덧붙이세요.
3. 손가락에 물감을 묻혀서 카드를 꾸며 보세요! 여기 나온 아이디어를 살펴보세요.
4. 친구와 가족에게 카드를 주세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침례식을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와 동생은 엄마의 도움을 받아 친구들과 반 친구들을 침례식에 초대했어요. 제 침례식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와 주었어요. 제가 침례를 받아서 정말 기뻐요!

이브 오, 8세, 마르티니크 포르 드 프랑스



나의 침례 성약

성약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맺는 약속을 말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맺는 세 가지 약속을 읽어 보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의 침례 성약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적어 보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엘레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구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방법:

“항상 그를 기억하고”(모로나이사 4:3)



그분의 이름을 받든다

나나는 친구에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모로나이사 4:3)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제임스는 나쁜 언어와 사진이 나오는 영상을 보지 않기를 선택했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계명: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모로나이사 4:3)



나의 성약 지키기

다음은 여러분의 침례 성약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에요!

사람들을 도와요

아키오는 남동생의 수학 숙제를 도와주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서로의 짐을 저 가볍게 하고자 하며”(모사이야서 18:8)

여러분의 확인 의식

침례를 받은 뒤에는 신권 소유자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요.

그 신권 소유자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고 성신의 은사를 받으라는 축복을 줄 거예요.(교리와 성약 33:15 참조)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해요

언니에게 불친절한 말을 한 아이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 언니에게 용서해 달라고 말했어요.

내가 회개하는 방법: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앨마서 5:49)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

우리가 침례와 확인을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성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평안을 느끼도록 도와주세요. 또, 성신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는 느낌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매주 성찬 기도에 귀 기울이면, 여러분의 침례 성약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다른 사람을 위로해요

루카스는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친구를 방문했어요.

내가 위로하는 방법: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모사이야서 18:9)

저는 이렇게 침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라노아리이예요. 저는 타히티에 살고 있고, 11살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어떻게 교회를 알게 되었나요?

친구들이 우리 가족을 교회 활동에 초대했어요. 그중 한 친구의 침례식에 초대도 받았어요.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선교사님들을 만나도 되는지 여쭙어보았어요.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어땠나요?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배우는 건 늘 재미있었어요. 제가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알려 주신 이야기와 게임들이 정말 좋았어요.





침례식은 어땠어요?

아빠가 제 11번째 생일에 엄마와 저에게 침례를 주셨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반 친구들과 선생님이 저를 도우러 와 주었어요.

물에서 나왔을 때 저는 기쁨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전 입꼬리가 귀에 걸릴 정도로 함박웃음을 짓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를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갔을 때 어땠나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해서 울 뻔했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활동에 가서 초등학교의 모든 아이들을 알게 되었고, 친구도 사귀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 새로 온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겁이 나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에 참석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랑해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저는 기도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요.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요. 집에서는 엄마의 집안일을 도와요. 아빠가 정원을 손질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무언가를 지으실 때도 옆에서 도와드려요. 몇 달 전에 와드에서 장기자랑을 했는데,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날 저녁 내내 드럼을 쳤어요!

침례를 받아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또는 가장 기대되는 것이 있다면요?

함께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는 침례를 받을 때 새로운 길을 걷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선택을 했어요. 침례식은 금방 끝났지만 마음이 벅차올랐고 뭔가 새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어요.

해피니스 디, 9세, 가나 아크라



침례를 받을 때 물 때문에 너무 추웠어요. 하지만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따뜻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는 큰 걸음을 내디뎠어요.

말라일라 에스, 8세, 캐나다 유콘



성신은 제가 행복하고, 기쁘고, 강해지게 해 주세요.

케일린 디, 6세,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침례를 받은 이후로 동생에게 친절히 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해요. 저는 동생의 유아차를 미는 것을 도와요. 저는 친절한 행동을 할 때 행복하고, 이런 제 행동 때문에 예수님도 행복해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시몬 피, 9세, 미국 매사추세츠주



저는 경전을 읽고 예수님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을 따라요.

루크 더블유, 9세, 미국 와이오밍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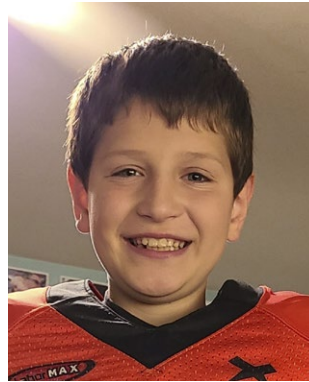
저는 마음이 평안할 때와 올바른 일을 선택할 때 성신을 느껴요. 엄마와 아빠 말씀을 잘 들을 때 성신이 더 가까이 느껴져요.

헤일리 지, 7세,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저는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신앙을
가짐으로써 예수님을
따라요.

요렐리 티, 6세, 멕시코 줌팡고



기도할 때, 경전을 읽을 때,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이
행복해요. 마치 사랑하는
누군가가 저를 안아
주는 느낌이에요. 그게
성신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올리버 비, 10세, 미국 워싱턴주



힘든 일을 겪을 때 저는
성신을 느껴요. 성신은
제가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와주세요.

**아잉세아 에이, 9세, 피지
중부구**



저는 성탄절에 아빠와
함께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가져다드렸어요.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따를 때 행복해요.

야카리 에프, 9세, 일본 지바



저는 가족을 사랑하고
엄마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따라요.

**클로에 디, 4세,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성신은 따뜻하고 저에게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성신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곁에
계세요. 그게 참 특별해요.

**헌터 오, 11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에요.

나의 침례와 확인 의식

내 이름은 _____ (이)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내가 침례받은 날: _____

나에게 침례를 주신 분: _____

나는 성신의 은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았어요.

내가 확인 의식을 받은 날: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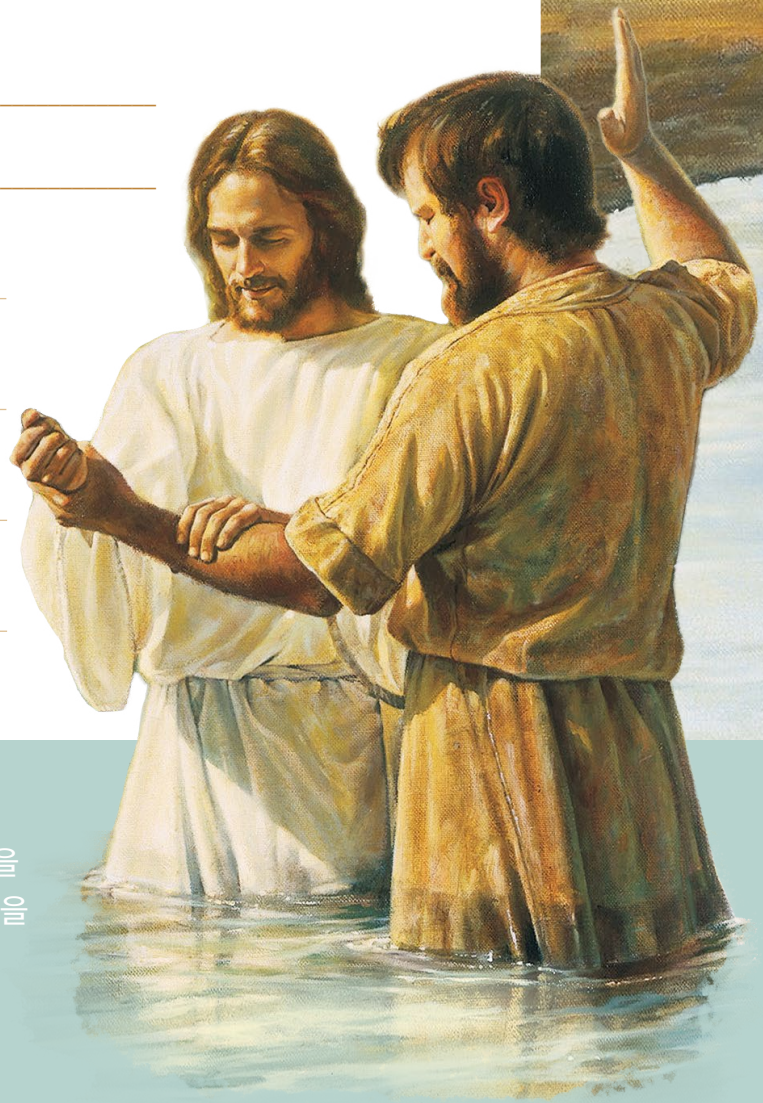
나를 확인해 주신 분: _____

나의 초등학교 회장님

나의 감독님/지부 회장님

나의 와드/지부

나의 스테이크/지방부



나는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었어요. 주님은 나를 인도하기 위해 내게 그분의 영을 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사이야서 18:10 참조)



확인 과 성신의 은사

침례를 받은 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을 받아요.
그리고 성신의 은사도 받아요.

특별한 선물

“이건 분명 성신일 거야.” 메르리마가 생각했어요.

그레첸 피클시머 키니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메르리마! 파티마! 선교사님들 오셨어.” 엄마가 부르셨어요.

메르리마는 경전 이야기책을 덮고 거실로 달려갔어요. 메르리마네 가족은 선교사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얼마 후엔 침례도 받을 계획이었어요. 메르리마는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메르리마는 가족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오늘 저희는 성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오는 평화와 평안을 느끼도록 도우십니다.” 모아이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북돋아주고, 무엇이 옳은지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전에 성신을 느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캠벨 장로님이 덧붙이셨어요.





메르리마는 물몬경에 대해 배웠던 때를 떠올렸어요. 그때 평화롭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성신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침례를 받은 후에 성신의 은사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신이 항상 여러분을 곁에서 돕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모아이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동안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서 성신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캠벨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메르리마는 가족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느낌을 알아차렸어요. 메르리마는 평온함과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 꼭 안아 주는 것 같았죠. **‘이건 분명 성신일 거야.’** 메르리마는 생각했어요.

메르리마는 일요일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자 행복한 기분이 들었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도 분명 성신일 거야.’** 메르리마는 생각했어요.

메르리마는 밤에 잠들기 전에 경전 이야기책을 읽었어요. 파티마가 자기도 읽게 해 달라고 졸랐는데, 메르리마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혼자서 책을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동생이 책을 읽게 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미안해. 우리 같이 읽을래?” 메르리마가 파티마에게 말했어요.

둘은 서로 나란히 앉아서 번갈아 가며 경전 이야기책을 읽었어요. 메르리마는 가슴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졌어요. **‘이건 분명 성신일 거야.’** 메르리마는 생각했어요.

마침내 침례를 받는 날이 되었어요. 메르리마와 가족은 교회 건물로 가서 흰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메르리마가 첫 번째로 침례를 받았어요. 물이 차가웠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을 수 있어서 기뻐요. 엄마가 메르리마를 수건으로 감싸 주셨어요. 이어서 엄마와 아빠, 파티마도 침례를 받았어요.

메르리마는 다시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제 확인을 받을 차례가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이 메르리마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대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노라. 그리고 말하노니, 성신을 받으라.” 캠벨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메르리마는 뒤이은 축복의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이 무척 따뜻해졌어요.

확인을 마친 후, 엄마는 메르리마를 꼭 안아 주셨어요. “기분이 어때?”

“정말 좋아요. 선교사님들이 제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무언가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메르리마가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훌륭한 삶을 살고, 사람들을 돕고,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해 것 같아요.”

“네가 느낀 게 뭔지 아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네.” 메르리마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그건 성신이었어요!”●

성신

성신은 “영” 또는 “성령”이라고도 불려요. 성신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교리와 성약 79:2 참조) 21쪽으로 가서 성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세요.

점을 연결해요

여러분은 침례를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아요.
또한, 여러분을 인도하고 위로할 성신의 은사도 받아요. 점을 이어 그림을 완성하세요.



성신의 소리를 들어요



로웬 비, 9세, 미국 오리건주

지난 여름, 우리 가족은 하이킹을 갔어요. 길을 따라 가다 보니 개울이 나왔어요. 언니와 남동생과 저는 신발을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제 무릎 높이보다 조금 더 깊은 곳까지 갔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저쪽에 언니 오빠들 여럿이 안쪽의 더 깊은 물에서 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하지만 제 머릿속의 목소리는 동생과 함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성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언니는 들어가서 확인해 봐도 되지만 저는 남동생과 여기 이대로 있겠다고 했어요.

깊은 물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언니는 물살이 정말 세고 걷기가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언니 말을 들으니 저와 남동생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

성신이 할 수 있는 일...

-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고해 주세요.
- 걱정되고 두려울 때 위로해 주세요.
-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게 해 주세요.
- 사랑을 느끼게 해 주세요.
- 무엇이 진실인지 알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여러분은 성신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신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이선이 또 다치면 어떡하죠?



가브리엘 시오자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선은 그네에 올라타서 발을 힘차게 앞으로 뻗었어요. 이선의 그네는 더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스치는 바람에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수업 종이 울렸어요. 이선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쉬는 시간은 너무 빨리 끝나 버렸어요.

아이들은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길게 줄을 섰어요. 이선은 천천히 그네를 멈추고는 교실로 돌아가려고 그네에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발이 땅에 닿자마자, 다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이선은 훌 위로 나뒹굴었어요. 일어나 보려 했지만 다리에 불이 난 것만 같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도와주세요!” 이선이 소리를 질렀어요.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달려와 이선을 도와주었어요.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선의 뼈가 부러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니었죠. 이선은 취약성 골절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 병 때문에 이선은 뼈가 쉽게 부러져요. 아주 작은 일로도, 이를테면 인도에서 내려서거나 누군가와 부딪히기만 해도 이선은 뼈가 부러질 수 있었어요.

“병원에 갈 수 있게 부모님께 전화드릴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괜찮을 거야.”

이선은 도와줄 사람들이 마침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리가 아직도 많이 아팠지만, 이제 안전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학교로 오셔서 이선을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이선은 다리에 파란색 깁스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선은 다리가 부러져서 침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읽을 책도 많았고, 때론 친구들이 게임을 하러 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심심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이선은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마음을 편안히 해 보려 했지만 걱정을 멈출 수 없었거든요.

만약 또 뼈가 부러졌는데 아무도 옆에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한밤중일 때처럼 말이야. 그런 생각에 빠지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선은 덜컥 겁이 났어요.

“아빠!” 이선이 소리쳤어요.

그러자 아빠가 방으로 달려오셨어요. “무슨 일이니?”

“저 무서워요. 다음에 뼈가 또 부러졌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해요?” 이선이 말했어요.

아빠는 침대에 앉아 있는 이선 옆으로 가서 앉으셨어요. “무서울 만하구나.”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아무리 조심하고 안전하게 있으려고 노력하더라도 안 좋은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널 지켜보고 계시단다.”

“하나님이 늘 저랑 함께 계시다고요?” 이선이 말했어요.

“그럼.” 아빠는 이선을 살며시 안아 주셨어요.

이선은 아빠가 자길 도와주러 얼마나 빨리 오셨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이선은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고, 늘 돕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것 같았어요.

이튿날 이선은 『친구들』 잡지에서 경전 구절을 하나 읽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구절을 읽자, 마치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처럼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선은 성신이 자신을 위로해 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꼭 아빠가 다시 안아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아마 뼈는 다시 부러질지 몰라. 그렇지만 겁낼 필요는 없어. 이선은 생각했어요. 이선은 자신이 절대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

*교리와 성약 68:6.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느껴 보았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성신을 통해 어떤 속삭임이나 느낌을 전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다른 누군가에게 속삭이실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팔짱을 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하세요.

경건한 태도와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말하며 마쳐요.

어느 때든, 소리 내어 기도하거나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해 기도하면 좋을지 아래에 나와 있어요.

감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하세요.

하루 중에 일어난 힘든 일이나 좋았던 일을 말씀드리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 도움을 청하세요.

도움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를 축복해 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굳건히 서서

나무뿌리는 매우 중요해요. 뿌리는 나무가 단단히 서 있도록 지탱해 주고,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와도 견디도록 도와줘요.

이 나무의 뿌리 부분에, 여러분의 삶에 성신을 초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머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굳건히 설 수 있어요.



매일 기도하기

경전에 색깔을 더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경전을 읽을 수 있어요. 경전을 통해 우리는 성신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경전을 읽을 때마다
그림을 조금씩 색칠해 보세요. 아래 그림은 네 권의 경전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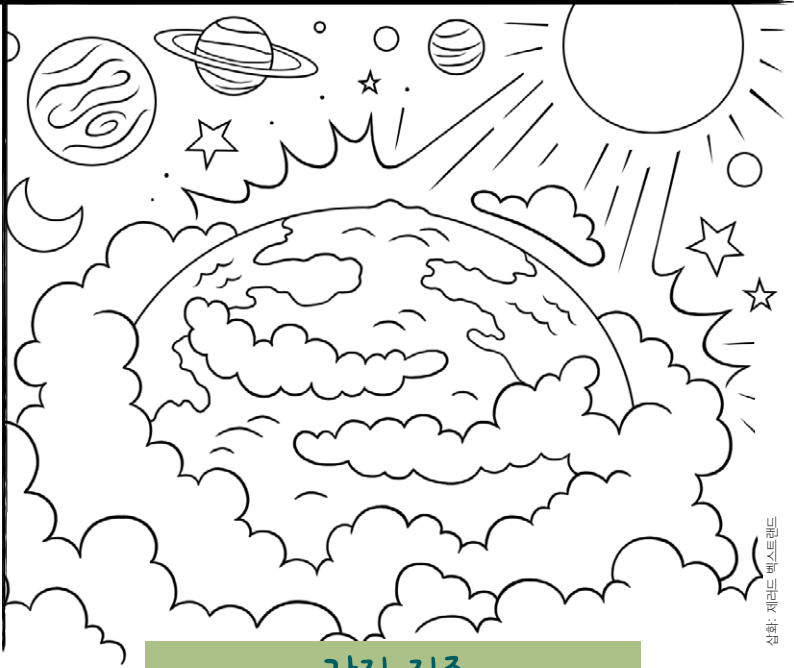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은 아주 많아요. 책으로 읽거나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로도 읽을 수 있어요. 녹음본을 들을 수도 있고, 경전 이야기책을
읽을 수도 있고, 몰몬경 비디오나 성경 비디오를 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요

여러분은 침례와 확인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돼요.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하셨어요.(교리와 성약 115:4 참조)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질문도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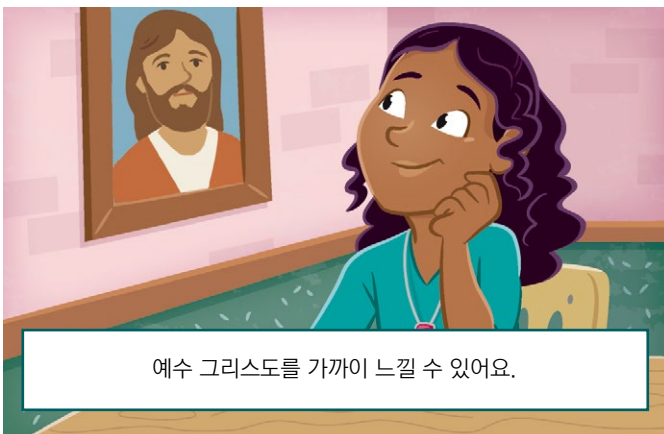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참되다고 느끼거나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른 사람들이 환영받는
느낌을 받도록 도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배워 보라고 권유할 수도 있어요!

성찬을 취해요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해요.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는 데 도움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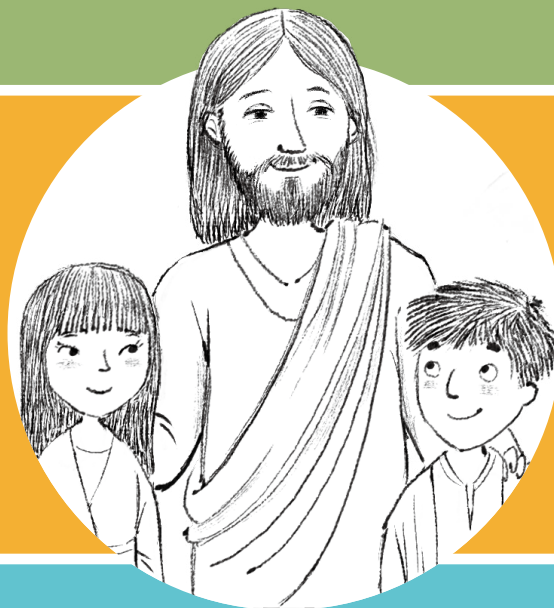


성찬을 취하기 전에 나는...

찬송을 불러요
빵과 물이 준비되는 것을 지켜보아요
성찬 기도를 들어요

성찬 의식을 하는 동안에 나는...

경건하게 빵과 물을 취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요
내 침례 성약을 기억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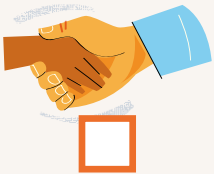


성찬을 취한 후에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기억하고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요
성신의 속삭임을 따라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아요

교회는 우리가 배우고, 즐기고, 다른 사람을 돕는 곳이에요. 이 목록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과 악수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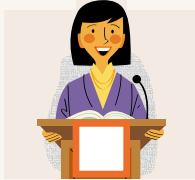
의자 놓는 것을 돕거나
쓰레기를 주워요



찬송가나 초등학교 노래를
배워요



초등학교에서 누군가를
도와줘요



성찬식 모임에서 말씀을
들어요



초등학교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익혀요



누군가에게 경전 구절을
이야기해 줘요



초등학교 선생님께 고마움을
표현해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주의
깊게 들어요



공과 시간에 질문에 답해요



초등학교 선생님께 『어린이
안내서』를 달라고 부탁해요



새로 온 사람과 이야기해요



와드 및 지부

와드와 지부는 교회에서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그룹이에요. 지부는 와드보다 규모가 작아요. 지부는 지부 회장이 이끄시고, 와드는 감독님이 이끄세요.

제이든의 말씀



캐리 램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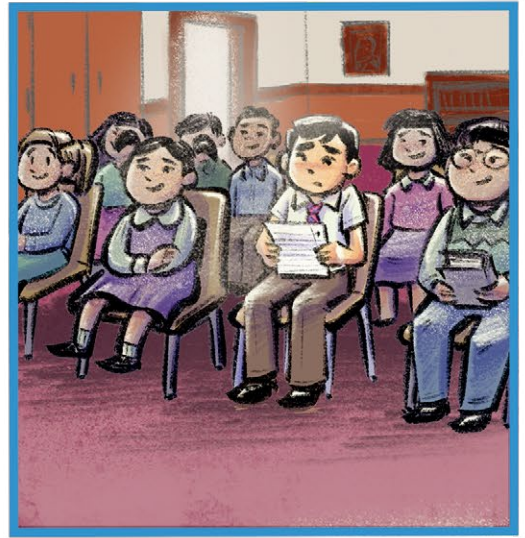
다음 주 ...





긴장돼요.

괜찮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을 하는 동안 떨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성찬을 취할 때,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분을 떠올립니다.

정말 훌륭하게 잘 하던걸?



떨렸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어요.

이 이야기는 홍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말씀하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경전 구절이나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가족의 이야기를 알아보세요

“우리 가족에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로레인이 말했어요.

루시 스티븐슨 이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바누아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로레인은 노래 마지막 마디를 부르며 활짝 웃었어요. 초등학교 노래 부르기 시간이 막 끝났어요. 이제는 공과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탈레오 자매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있을 초등학교 활동을 알려 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이 각자 자기 가족에 대해 알아보면 어떻게 생각해 보았어요. 부모님께 여러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보세요. 그런 다음 활동 시간에 각자가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교회에서 돌아온 로레인은 신이 나서 커다란 종이를 찾아 들고 식탁으로 갔어요. 로레인은 자기 가족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로레인은 종이에 가계도를 그렸어요. 엄마 아빠는 가계도에 들어갈 모든 이름을 올바르게 쓰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런 뒤 포스터에 가족들 사진도 풀로 붙였어요.

“증조할머니 성함도 로레인이었어. 할머니 이름을 따서 네 이름을 지었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로레인이 답했어요.

“로레인 할머니는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셨단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을 사람들 집에 땀감이 떨어지면 로레인 할머니가 가져다주곤 하셨지.”

가족에 대해 배우는 건 정말 재미있었어요! “우리 가족에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로레인이 말했어요.

“아빠가 처음으로 성전에 간 일을 들려주실 거야.”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그때 겨우 여섯 살이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랑 뉴질랜드에 있는 성전까지 먼 길을 가셔야 했거든.”

로레인은 성전 이야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엔 뉴질랜드행 비행기를 탔고, 그다음엔 버스를 탔지. 성전이 얼마나 멀었는지.” 아빠는 성전 사진을 하나 보여 주셨어요. “그런 여정 끝에 마침내 부모님과 성전에 들어갔단다. 그리고 한 가족으로 인봉되었지. 그건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 이야기를 들은 로레인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로레인은 가족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기뻐요.

마침내 초등학교 활동의 날 아침이 되었어요. 로레인은 교회에서 활동을 준비하시는 엄마와 탈레오 자매님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던 중 함께 정말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로레인이 사는 섬에 성전이 지어질 거래요!

로레인은 무척 행복했어요. 로레인이 커서 성전에 갈 때는 이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로레인의 친구들은 모두 초등학교 활동을 하려고 한자리에 모였어요. 친구들은 각자 가족에 대해 배운 것을 차례대로 이야기했어요. 자기 차례가 돌아오자, 로레인은

가게도가 그려진 포스터를 들어 올렸어요.

“우리 가족에 대해 배워서 정말 좋았어요.” 로레인이 말했어요. “제 이름이 증조할머니 성함을 따서 지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우리 가족이 처음 성전에 갔던 이야기도 들었어요. 성전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해 줘요.” 로레인의 마음속에 따뜻한 느낌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곳 바누아투에도 성전이 생긴다니 정말 기뻐요.”

로레인은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자리에 앉았어요. 로레인은 예수님을 닮아 가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로레인은 하루라도 빨리 성전 안에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



초등학교 활동

매주 교회에서 여러분은 다른 어린이들과 함께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에서 열리는 초등학교에 참석할 수 있어요. 가끔은 초등학교 활동을 주중에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 활동에 참여해서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예수님처럼 성장하기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목표를 세우고, 복음을 배움으로써 여러분이 좀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새로운 것을 해 보고 재미있게 지내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어린이 안내서』를 보며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책자가 없다면 초등학교 선생님께 달라고 부탁하세요.



복음에 대해 더 배우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키우면서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운동하거나 기술을 익히면서 신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며 지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52)



매일 예수님을 따라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선택할 때,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어요.

깨진 물병

케이드는 목이 말랐어요. 소피아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노엘 램버트 바루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시에라리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소 피아는 칠판에 있는 수학 문제를 설명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자, 9 곱하기 4는 몇까요?”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소피아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36이요!”

선생님이 활짝 웃으셨어요. “맞았다, 소피아!”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었어요. 소피아는 친구들과 함께 걸었어요. 아이들은 목을 축이려고 다들 물이 얼마 남지 않은 물병을 꺼냈어요. 정말 무더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소피아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케이드



혼자 물을 마시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케이디는 가만히 따라 걷기만 했어요.

“케이디, 네 물병은 어딴데?” 소피아가 물었어요. 학교를 마칠 때쯤이면 모두가 항상 목이 말랐으니까요.

“어제 깨뜨렸는데, 새로 살 수가 없어.” 케이디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물 못 가져와.”

소피아는 고개를 떨구고 자기 물병만 물끄러미 보았어요. 물을 나눠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만 물은 이미 다 마신 뒤였어요.

그날 내내 소피아는 케이디와 깨져 버린 물병을 생각했어요. 소피아와 케이디가 사는 곳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개 아이들은 일 년 동안 사용할 물병을 딱 하나씩만 받죠. 그리고 그 병에 집에 있는 커다란 통에 담긴 깨끗한 물을 담아오곤 해요. 아무 물이나 함부로 마셨다간 탈이 나고 마니까요. 케이디가 물병이 없으면 학교에 올 때 집에서 마실 물을 가져오지 못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소피아는 어떻게 하면 케이디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소피아네 집에는 물이 가득 든 플라스틱 통이 몇 개 있었어요. 소피아는 그중 하나를 집어서 자신의 스텐 물병과 함께 가방에 넣었어요. 가방이 조금 무거워졌지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었어요.

학교에 도착한 뒤, 소피아는 케이디를 발견했어요. “케이디, 혹시 물병 새로 받았어?” 소피아가 물었어요. 케이디는 눈을 아래로 떨구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널 위해서 하나 갖고 왔거든!” 소피아가 말했어요.

소피아는 물병을 케이디에 건넸어요. 케이디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소피아!” 케이디는 소피아를 꼭 껴안았어요. 수업 시간에 케이디는 다른 애들처럼 물병을 꺼내어 물을 마셨어요. 소피아는 물로 목을 축이는 친구를 보며 마음이 흐뭇했어요.

소피아는 그 주 내내 매일 친구에게 줄 물통을 따로 챙겨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무심코 소피아의 가방을 들어 보셨어요.

“흠. 평소보다 가방이 무거운걸.” 엄마는 가방을 열어 추가로 넣은 물통을 꺼내셨어요.

“소피아, 학교에 가져가려고 물병을 일부러 하나 더 챙긴 거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케이디가 갖고 다니던 물병이 깨졌는데, 새로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학교에서 물을 못 마신대요.”

“며칠 동안이나 그 친구를 위해서 물을 챙겨다 준 거야?” 엄마가 물으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만요. 케이디가 목말라 하는 게 안타까웠어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엄마는 활짝 웃으셨어요.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무척 예쁘구나.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하셨을 거야. 네가 예수님을 닮아 가려 노력하는 걸 보니 엄마 마음이 행복하네.”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소피아를 안아 주셨어요. “또 우리가 도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는 소피아에게 스텐 물병을 주셨어요. “이걸 친구에게 갖다 주렴. 계속 다시 쓸 수 있게 말이야. 이러면 매일 플라스틱 물통을 가져다주지 않아도 되겠지?”

“정말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다만 깨지지 않게 잘 쓰라고 말해 주렴.”

물병을 학교로 가져 간 소피아는 도착하자마자 케이디에게 그 물병을 건넸어요.

“와.” 케이디는 깜짝 놀랐어요. “고마워, 소피아!” 케이디는 소피아를 꼭 안아 주었어요.

소피아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소피아는 자신이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방법으로 친구를 도왔다는 걸 알았어요. ●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누군가를 도왔나요?

공원에서 있었던 일

헌터는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나는 그런 말은 안 써.”

다이애나 에블린 닐슨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헌터가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가로질러 달렸어요. 스치는 바람을 느끼면서, 헌터는 씩 웃음을 지었어요. 몸이 날쌔고 가볍하게 느껴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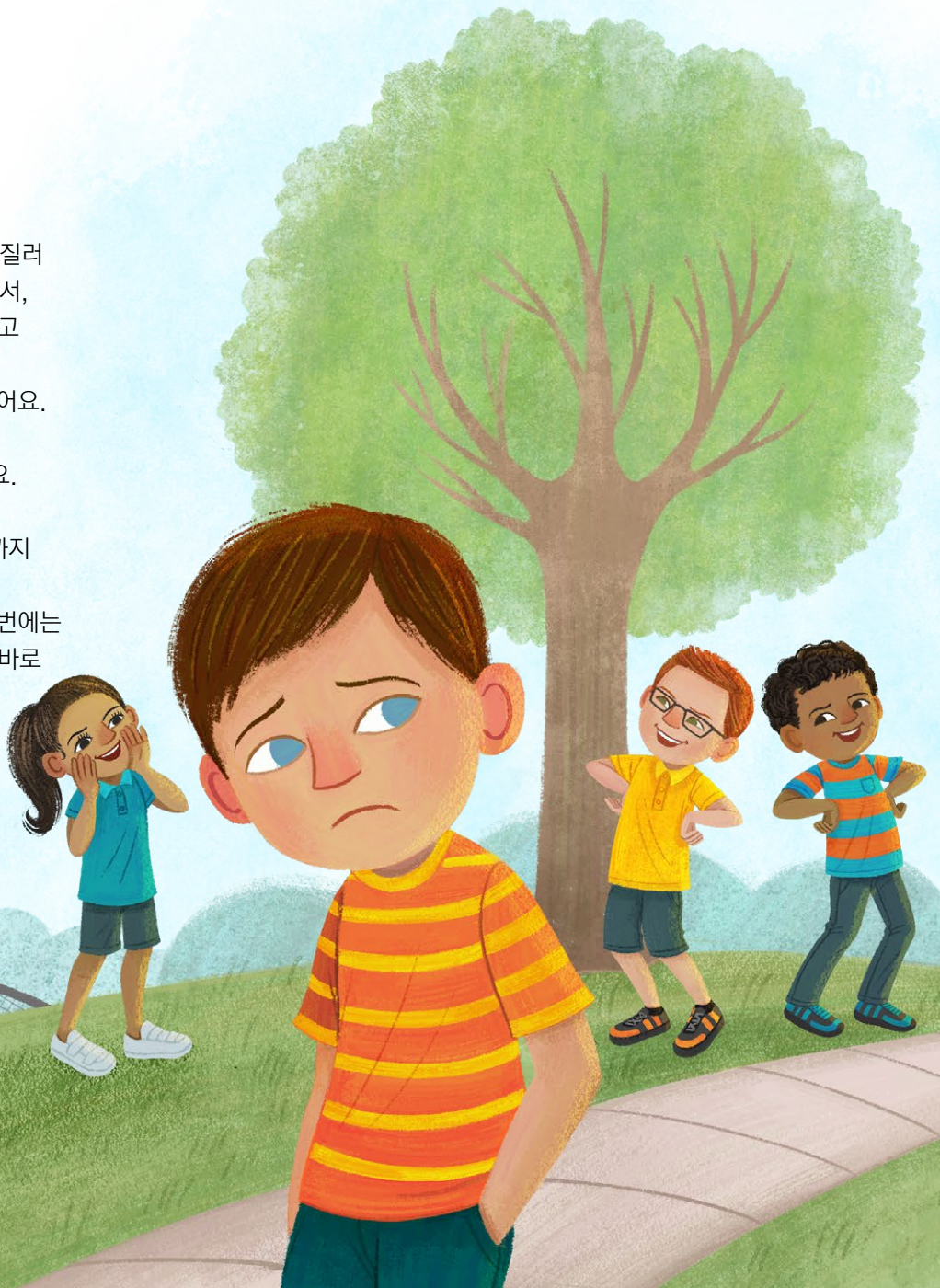
카일이 먼저 울타리를 손으로 탁 쳤어요. “내가 이겼어!” 카일이 소리쳤어요.

헌터가 한발 늦게 울타리에 닿았어요. “인정 못 해! 네가 먼저 출발했잖아!”

“맞아.” 미겔도 말했어요. “저 나무까지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헌터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헌터가 먼저 나무에 닿았어요. 미겔은 바로 뒤에 있었어요.

“내가 이겼어!” 미겔이 외쳤어요.



“아니, 헨터가 이겼어.” 파이퍼가 말했어요.

“맞아.” 카일도 거들었어요.

미겔은 팔짱을 끼더니, 나쁜 말을 내뱉었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낄낄댔어요. 미겔이 다시 그 말을 하자, 아이들은 더 깔깔댔어요.

헨터는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림을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헨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파이퍼가 다른 나쁜 말을 내뱉었어요. 그러자 카일도 또 다른 나쁜 말을 했어요.

“자, 헨터 너도 해 봐.” 카일이 말했어요.

“그래, 해 봐.” 미겔도 말했어요. “넌 다른 욕을 한 번 해 봐.”

헨터는 크게 심호흡을 했어요. “나는 그런 말 안 써.”

“한 번쯤 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카일이 말했어요.

“난 싫어.” 헨터가 말했어요.

“너무 겁나니?” 미겔이 비웃었어요.

헨터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다른 데 가서 놀래.”

친구들은 계속 히죽대며 나쁜 말을 내뱉었어요. 헨터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공원에서 노는 건 이제 재미가 없었어요. “다음에 보자.” 헨터가 웅얼거렸어요.

헨터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친구들을 지나쳐서 천천히 걸었어요. 왠지 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무언가에 놀리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헨터는 벤치에 앉아 계신 엄마와 아빠를 발견했어요. 아빠는 읽던 책을 덮으셨어요. “괜찮니?”

헨터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애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러기 싫어서 나왔어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용감한 일을 했네.”



“아빠랑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구나. 주위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좋은 선택을 하려면 무척 어렵지.” 아빠도 말씀하셨어요.

헨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옳은 선택을 한 것은 기뻐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찝찝했어요.

“집으로 갈래?” 엄마가 물으셨어요.

헨터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이요.” 헨터가 말했어요. 저쪽에서 집라인을 타는 다른 친구들이 보였어요. “저기 가 볼래요.”

헨터가 다가가자, 그곳에서 놀던 한 남자아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안녕, 난 데이비드야.”

“난 헨터야. 같이 타도 돼?”

“좋아!”

집라인을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데이비드와 여러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헨터는 다시 몸이 가볍고 날쌌던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헨터는 힘들었지만 옳다고 믿는 일을 해냈어요. 그리고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게 기뻐요. ●

옳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면, 『어린이 안내서』 뒷부분의 나의 복음 표준을 읽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셨습니다.(요한복음 13:5, 13~17 참조) 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보고 최선을 다해 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셨습니다.(마가복음 10:14 참조) 나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혼자라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제3니파이 17:15~18 참조)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도 축복해 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요한복음 8:11 참조)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미안해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5:1~9 참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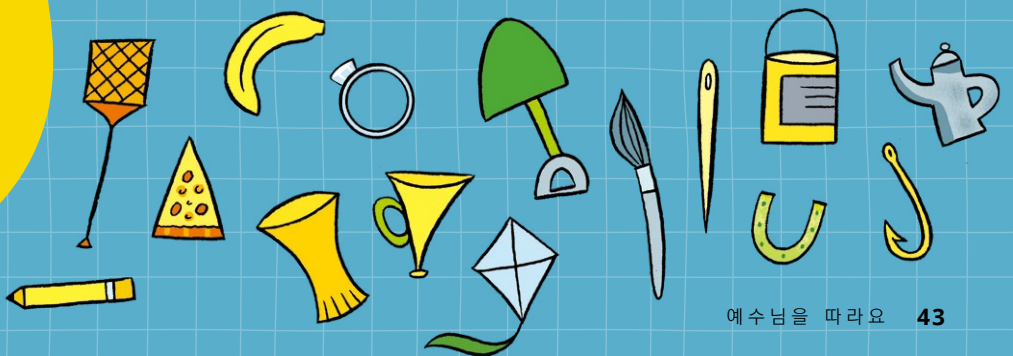


예수님은 완전한 모범이셨습니다.(요한복음 1:15 참조) 나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숨은그림찾기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함으로써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요.
그림 속에 숨은 물건을 찾을 수
있나요?



반짝이는 목걸이

카롤리나는 그저 목걸이를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싶을 뿐이었어요.



카롤리나 마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아르헨티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카롤리나는 정원을 가로지르며 폴짝폴짝 뛰었어요.
카롤리나의 친구인 이사벨라가 밖에 있었어요.

이사벨라는 손을 흔들었어요. “이리 와서 놀자!”

카롤리나는 정원을 가로질러서 이사벨라의 집으로 갔어요.

이사벨라는 자기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했어요. “보여 주고 싶은 게 있어.” 이사벨라는 카롤리나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아름다운 목걸이를 꺼내 보였어요. 보석알들이 무척이나 환하게 반짝였어요.

“이거 엄마 건데, 엄마가 오늘은 가지고 놀아도 된다고 하셨어.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는지 좀 봐 봐.”

이사벨라는 목걸이에 햇빛이 비치도록 들어 올렸어요. 보석알마다 반사된 수많은 무지개가 반짝거렸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제 숨바꼭질하자!” 이사벨라가 말했어요.

“좋아! 목걸이는 내가 안전하게 보관해 줄게.” 카롤리나가 답했어요.

“고마워!” 이사벨라는 카롤리나에게 목걸이를 건넸고, 카롤리나는 목걸이를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곧 카롤리나가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이사벨라는 작별 인사를 할 때 목걸이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아마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카롤리나도 굳이 말해 주지 않았어요.

목걸이를 집으로 가져간 카롤리나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 느꼈어요. 하지만 카롤리나는 그저 목걸이를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싶을 뿐이었기 때문에 안 좋은 기분을 무시하고 목걸이를 베개 밑에 넣었어요.

다음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카롤리나는 자기가 맡은 집안일을 한 뒤 밖으로 놀러 나갔어요. 목걸이는 까맣게 잊어버렸고요.

“카롤리나!” 아빠가 부르셨어요. “잠깐 이리 와 볼래?”

카롤리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부르셨어요?”

아빠가 목걸이를 보여 주셨어요. “엄마가 이것을 네 베개 밑에서 찾으셨는데, 이건 누구 거니?”

“이사벨라 거예요.” 카롤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제 같이 놀 때 제 주머니에 안전하게 보관해 뒀는데, 그만 집으로 가져와 버렸어요.”

엄마가 카롤리나와 함께 소파에 앉으셨어요. “사실대로 말해 줘서 고마워. 네 생각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니?”

카롤리나는 말이 없었어요. 카롤리나는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은 카롤리나가 정직한 아이가 되고 목걸이를 되돌려주길 바라실 거예요.

“이사벨라에게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해야 해요.”

카롤리나가 말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그 나쁜 기분이 사라졌어요. 카롤리나는 가슴속이 따뜻해졌어요.

카롤리나는 이사벨라의 집으로 갔어요.

“안녕.” 카롤리나가 인사하며, 이사벨라에게 목걸이를 내밀었어요. “목걸이를 가져가서 미안해. 용서해 줄래?”

“응, 다시 돌려줘서 고마워.” 이사벨라가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또 숨바꼭질 할래?”

“좋아! 네가 먼저 술래해, 내가 숨을게!”

그날 밤 카롤리나는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목걸이를 가져왔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카롤리나는 다시 마음속이 따뜻해졌어요. 카롤리나는 자신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했다는 게 기뻐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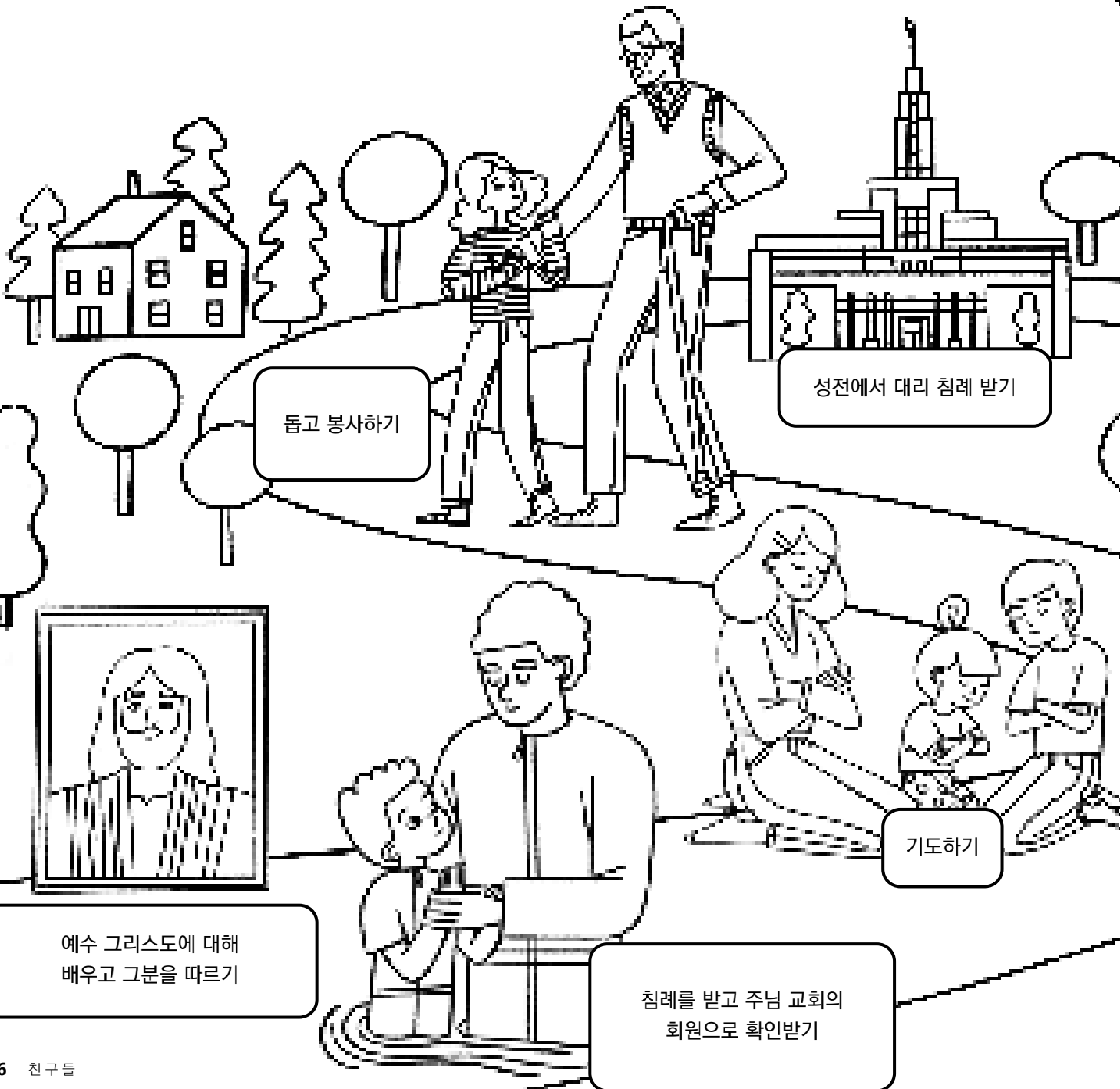
나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나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변화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요.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요. 그다음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다시는 나쁜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성약의 길을 따라 걸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배우고 성장하여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상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여러분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길을 따라 걷게 돼요. 이 길은 성약의 길이라 불려요. 길을 따라가면서 이 그림들을 색칠하며 더 알아보세요.



돕고 봉사하기

성전에서 대리 침례 받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을 따르기

침례를 받고 주님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기

기도하기



회개하기

온 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르기!

다른 성전 성약과 축복 받기

경전 읽기

성찬 취하기

가족을 사랑하고 봉사하기

성신에 귀 기울이기



여러분을 위한 잡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전 세계의 어린이를 만나기 위해 『친구들』을 받아 볼 수 있어요!

잡지 주문 방법:

부모님이나 초등학교 회장님께 여러분을 위해
magazinesubscription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잡지를 주문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친구들』 웹사이트인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friend?lang=kor>에
가 볼 수도 있어요.





친구들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헨리 비 아이어링

십이사도 정원회: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디미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게릿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랜들 케이 베넷
부편집자: 가즈히코 야마시타
고문: 트레이시 와이 브라우닝, 마이클 티 링우드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애덤 올슨
출판 팀 관리자: 리 기본스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쟈 핀보로우
관리 부편집인: 로리 폴러 소사
디지털 관리 부편집인: 샬럿 라카발 스피크먼
교정 담당자: 머리사 드니스

편집인: 루시 스티븐슨 이웰, 노엘 램버트 바루스, 올리비아 키터만, 메리엘렌 제이 반 영겔렌호벤
관리 보조: 캐리어 카스튼
편집 인턴: 다이아나 예블린 넬슨

미술 책임자: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마크 로빈슨
디자인: 토머스 에스 차일드, 수전 로프그렌

지식 재산 코디네이터: 프리실라 비엘 모타

언어 제작 관리자: 암몬 해리스
언어 제작 팀: 아이라 글렌 어데어, 줄리 버넷, 호세 차베스, 제인 알 그레이 이세,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미셸 프록터, 머리사 엠 스미스, 론 솔로몬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넬슨 곤잘레스

통권: 32호, 제3권, 제8호
등록: 2021년 6월 18일, 서초-라11793호

발행일: 2023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박경렬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안덕현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0 정국빌딩 남관 205호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중준

추가 주문하는 법

이 침례 특집호는 모든 어린이들, 그중에서도 특히 침례를 준비하는 어린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가정이나 초등학교에 속한 모든 어린이를 위해 잡지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1. 연례 교과 과정 주문 양식을 사용하여 워드 또는 지부용 잡지를 주문하십시오.
2. 개인 주문은 store.ChurchofJesusChrist.org/friend에서 하십시오.
3. 지역 배부 센터에서 또는 글로벌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여 개별 구입하십시오.

또한 인쇄용 "나의 침례와 확인 의식"(16쪽)은 friend.ChurchofJesusChrist.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2023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친구들』(ISSN 0009-4102)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 잡지이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ah 84150-0024, United States of America. 정기간행물의 우편 요금은 유타주 슬트레이크시티에서 지불합니다.

판권 정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친구들』의 자료는 개인 사용 및 비상업적 사용을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부름과 관련된 사용도 포함됨) 이 권리는 언제 어떤 사유로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시각 자료는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5, Salt Lake City, UT 84150, USA; email cor-intellectualproperty@ChurchofJesusChrist.org.

구독 및 주소 변경: store.ChurchofJesusChrist.org, www.liahona.kr을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에 제약이 있는 경우 080-238-8000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변경 사항이 적용되려면 60일이 소요됩니다.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Cand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원고 및 작품 제출 주소: Friend Editorial, 50 E. North Temple St. Rm. 2432,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nited States of America.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도 받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제출물은 반송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friend@ChurchofJesusChrist.org. 『친구들』은 다음 링크에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ChurchofJesusChrist.org/friend.

